

조화의 현재적 부재와 회복

윤두현(정소영갤러리 아트디렉터)

요즘 시대에 누구나 흔히 자연의 중요성을 부르짖고 또 주요한 사회적 경향의 하나로 자연친화적 삶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부각되고 있다하더라도,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여전히 편협함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애타게 좇지만 정작 우리네의 삶은 늘 뒤숭숭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각박해지고 있다. 이런 상실과 괴리는 곧 부조화로부터 비롯된다. 나아가 이는 자연스러움의 참 의미를 가슴으로 깨닫고 조화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그 수렁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기범은 지금까지 동양적 사유를 근간으로 이른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그의 작품 안에서 이상적 조화란 정작 그것의 현재적 부재를 먼저 드러냄으로써만 가능해진다.

그가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충돌(clash)'이다. 여기서 충돌이란 다름 아닌 자연과 인공의 대립이다. 이로써 그는 우리의 삶 안에서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부재하는가에 관한 작가적 인식을 치밀하고도 섬세하게 그려낸다. 우선 충돌은 그의 작업 전반에서 등장하는 무수한 선들의 교차를 통해 표면화된다. 여러 겹의 층으로 한 데 겹쳐지고 중첩된 선들이 작위성과 자연스러움을 오가며 끊임없이 충돌한다. 줄을 이용한 설치작업은 중력을 거스른 채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던 선들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차차 이완되면서 자연의 질서 안으로 순응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평면이나 영상 작업 역시 자연의 질서인 중력에 내맡김으로써 얻어진 자연스러움과 이를 거부하는 인위적 태도 또는 도시와 자연의 이미지가 혼재하는 속에서 충돌의 구조를 형상화한다. 또한 그가 각각의 선들에 담아내고 있는 관념들에는 '중력'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것은 삶 내지 존재 자체에 대한 본원적 태도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순응과 거부라는 상반된 의지의 교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는 동양화의 관념적이며 회화적인 전통을 동시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라는 문제로도 확장된다. 바로 무엇을 고수하고, 버릴 것이며 또 새롭게 취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와 함께 작가가 파악하고 있는 동양화의 회화적 요체란 바로 붓에 의한 필선이다. 전통의 문맥 안에서 볼 때 글씨를 쓰던, 난이나 매화를 치던 각각의 필선이 일궈낸 자연스러움의 정도는 곧 작품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그 행위 주체의 삶과 철학적 깊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였다. 작가의 선에 대한 진지한 천착 역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써 선은 그에게 철학적 사유의 도구라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우주 혹은 자연의 질서, 참 존재, 조화와 같은 본질적 관념과 역사의 궤적들이 공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가 회화적 전통을 현재화하는 데 가장 큰 주

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신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신성이란 다른 아닌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참된 자기인식의 의지와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해 작가는 과정 자체를 사유한다. 어떤 확정된 결과로써가 아니라 자연과 인공의 대립 안에서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질서의 실체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작가가 이러한 주제의식을 형상화하면서 특정한 서사적 틀을 내세우기 보다는 고도로 압축된 조형언어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권기범의 작업들은 마치 극도로 절제된 한 편의 시를 연상케 한다. 나아가 이는 그의 작업들이 지닌 차별성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넘어야 할 과제를 남기게 된다. 즉 극도의 압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동시대의 삶 속에 보다 구체적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담론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어떻게 폭 넓게 환원될 것인가라는 외연의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 그렇지만 이런 점들도 권기범이 다루고 있는 자연성의 회복이 분명 우리시대에 필요한 핵심적 담론의 하나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못한다. 더불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작가가 자연성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이 곧 현실에 대한 전면부정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는 부재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전제로 이상적 조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권기범의 보여줄 앞으로의 작업에 기대를 걸게 하는 소중한 이유다.